

# 중국어 부사어의 유형 분류와 후치 부사어 '得' 자문의 성립\*

— 전치 부사어 '地' 자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 유 정\*\*

##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어 보어와 부사어에 관한 선행연구
3. 부사어의 유형별 특징과 통사적 위치에 대한 고찰
4. 중국어 부사어의 유형 구분과 통사적 위치
  - 4.1 'A地V'와 'V得A'의 사용 현황
  - 4.2 부사어의 하위 유형과 통사적 출현 위치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중국어의 문장 성분은 동사를 중심으로 한 통사적 출현 순서를 기준으로 명명된다. 그 중, 동사의 앞에 출현하여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수식하는 성분은 '狀語(이하 부사어)'로, 동사의 뒤에 출현하여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따른 결과나 상태, 정도를 표시하는 성분은 '보어(補語)'로 지칭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성분이 모두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사건에 대한 수식적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6432). 논문의 초안은 2018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중국어 후치 부사어의 성립에 관한 소고: 得자문을 중심으로>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 가톨릭대학교 중국언어문화전공 조교수(aigege@catholic.ac.kr)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지 통사적 위치에 따라 이 두 문장 성분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보어의 경우 언어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complement<sup>1)</sup>’와는 이질적인 중국어만의 특수한 문장 성분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어의 범언어적 문법 지위를 어떻게 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중국어학계 내부적으로도 보어에 대한 정의와 분류 및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명사성 성분을 제외한 동사 뒤 모든 성분을 보어로 구분하기에 이른다.<sup>2)</sup>

사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그것이 주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듯하다. 일찍이 黎錦熙(1924/1992)는 동사의 전, 후에 출현하는 성분을 모두 부사어라 언급한 바 있으며, 呂叔湘(1979)은 보어의 일부를 부사어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언어 유형학적 관점에서 중국어 보어와 부사어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언어 유형에 따른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에 대한 세계 언어의 경향성과 중국어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SVO 언어로 구분되는 중국어에서 부사어가 동사의 뒤가 아닌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오히려 부사어의 위치로 적합해 보이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보어의 존재에 주목하여 그 문법적 지위를 재조명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중국어의 보어를 부사어의 일종으로 보고, 전통적인 부사어의 위치인 동사의 앞이 아닌 동사의 뒤에 위치한다 하여 ‘후치 부사어(post-posing adverbial)’라 명명하고 있다(劉丹青 2005, 金立鑫 2009, 金立鑫·于秀金 2012, 오유정 2017). 그 중 金立鑫(2009)은 형용사성 보어의 의

1) 그간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의 보어가 언어학적으로 논의되는 보충어(complement)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일반적으로 보충어는 계사(copula) 뒤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묘사하거나 한정하는 형용사구나 명사구를 지칭한다. 한편, 생성문법에서 보충어는 핵(head)의 자매(sister) 요소로 나타난다(沈家煊 역 2000:70, 강명운 역 1998:152-153). 중국어 보어와 ‘complement’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鄧菁·金立鑫(2011) 참고.

2) 즉, 동사 뒤에 출현하는 명사성 성분은 빈어로, 그 외의 모든 성분을 보어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는 沈家煊(2010)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미지향을 기준으로 동사의 뒤에서 동사를 의미 지향하는 보어를 모두 후치 부사어로, 동사가 아닌 명사성 성분을 의미 지향하는 보어를 이차술어(secondary predicates)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오유정(2017)에서는 동결식(VC) 보어와 '得'자문 보어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 중 '得'자문 보어만이 부사어에 해당하며, '得'가 중국어 부사어 표지의 일종이라 주장하였다.<sup>3)</sup>

본고에서는 부사어에 대한 유형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어 '후치 부사어'의 성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得'자 보어를 중국어의 후치 부사어로 상정하고 '得'를 부사어 표지로 제안한 오유정(2017)의 논의에 따라, 중국어의 '得'자 보어가 중국어의 부사어인 '地' 부사어와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만 통사적 위치에 따라 일정한 의미 기능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得'자 보어의 언어 보편적 지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 가능해질 것이며, 동사 전, 후의 형용사성 성분, 즉 'De'를 표지로 가지는 부사어와 보어의 의미 기능적 역할 분담과 이들의 모호한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먼저 중국어의 부사어와 보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와 그에 따른 의미 기능적 차이에 대한 유형학적 논의를 살피고, 이를 통해 중국어에 후치 부사어가 존재함을 보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전치/후치 부사어의 의미 기능적 차이와 통사적 위치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결론이다.

3) 金立鑫(2009)은 보어의 의미지향을 기준으로 논항을 의미지향하는 보어를 '이차술어(secondary predicates)'로, 동사를 의미지향하는 보어를 부사어로 구분한다. 그러나 오유정(2017)에서는 의미지향만으로는 부사어와 이차술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金立鑫(2009)의 구분이 한계를 가진다고 보고 동결식의 보어를 이차술어로, '得'자 보어를 부사어로 구분하였다. 이차술어와 부사어는 의미 기능적으로 유사성을 가지지만, 형태 통사적으로 이차술어가 주로 원형적(bare) 형태인 반면, 부사어는 형태적으로 유표적이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유정(2017) 참고. 이차술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Croft(2012), 金立鑫(2009) 참고.

## 2. 중국어 보어와 부사어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어에서 보어와 부사어는 각각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성분’ 및 ‘방식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 수식어’(丁聲樹 등 1961)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동사에 대한 보충 설명과 수식어라는 기능적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동일한 형용사가 동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 즉 보어와 부사어라는 서로 다른 성분을 충당하는 현상에 주목, 이들의 기능적 차이와 제약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鏡像表達/狀補鏡像(張黎 2003)’, ‘狀補可換位結構(朱文文 2008)’, ‘形容詞作狀語和補語現象(林素廷 2013)’, ‘形容詞狀補異位(徐采霞 2016)’ 등 학자마다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서로 다른 통사적 위치에 출현하는 형용사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주력하였다. 즉, 동일한 형용사가 사용된 보어와 부사어는 [결과/과정], [평가/묘사], [경계성/비 경계성], [V 초점/A 초점] 등과 같은 대립적 자질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地’ 부사어	‘得’ 보어
과정(방식)	결과
묘사	평가
경계성	+ 경계성
동사 초점	보어 초점

표 1. ‘地’ 부사어와 ‘得’ 보어의 대립적 자질

그러나 이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용사가 보어와 부사어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보어로, 어떤 경우 부사어로 나타나는지,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자질의 대립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최근에는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유형 분석, 코퍼스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법 마련 등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소영 2014, 정소영 2015, 임소정 2015, 노지영 2016, 이나현 2016, 신미경·유위 2016, 유위·신미경 2017 등). 역시 앞서 언급된 다양한 대립적 자질을 중심으로 부사어와 보어의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형용사와 출현할 수 없는 형용사를 통계적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용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수법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고, 또 예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많아 역시나 명쾌한 결론을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중국어 보어와 부사어의 복잡한 관계를 방증하는 것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현재의 연구 방법으로는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중국어 보어와 부사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가 중국어학계의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보어와 부사어를 변별적 문장 성분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전제에 따라 유사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이들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만 논의를 집중해 왔다면, 오히려 이들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왜 서로 다른 통사적 위치에서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부사어가 단순히 동사 사건을 수식하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하위 부류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기능의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통사적 위치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어의 보어와 부사어가 부사어의 하위 부류로 설명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부사어의 하위 부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어 부사어와 보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적절히 사

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보어를 ‘후치 부사어’의 일종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본고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3. 부사어의 유형별 특징과 통사적 위치에 대한 고찰

Dryer(1992)는 양태 부사와 동사의 통사적 위치에 대한 유형학적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OV 언어: 양태 부사-동사
- VO 언어: 동사-양태 부사

하지만 사실상 양태 부사의 통사적 위치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영어의 예를 보자.

- (2) John (quickly) threw (\*) the book (quickly) into the drawer (quickly).

(Geuder 2002:26)

VO 언어인 영어에서 부사가 동사에 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나<sup>4)</sup>, 그것이 꼭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만약 양태 부사가 이처럼 다양한 통사적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면, 각각의 위치에서 나타내는 의미기능에도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즉, 양태 부사는 언어별로 일정한 통사적 위치에서 동사 사건의 행위 방식을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보다 다양한 통사적 위치에서 다양한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양태 부사의 통사적 위치와 의미기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4) 물론 영어에서 양태 부사어가 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은 유효적이며, 모든 양태 부사어가 동사에 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Geuder 2002: 25).

이러한 관찰에 따라, Geuder(2002)는 양태 부사어<sup>5)</sup>를 순수(pure) 양태 부사어, 행위자성(agentive) 양태 부사어, 투명(transparent) 양태 부사어, 결과성(resultative) 양태 부사어의 4가지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의 예문을 제시하였다(Geuder 2002:29-35, Himmelmann & Schultze-Berndt 2005:6).

- (3) a. John answered the question angrily. (순수 양태 부사어)  
 b. John stupidly answered the question.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  
 c. John angrily broke the door open. (투명 양태 부사어)  
 d. They loaded the cart heavily. (결과성 양태 부사어)

(3b)는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행위자성 부사어로 (3c)는 어근이 되는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동사 사건의 행위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명 부사어로 (3d)는 동사 사건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과성 부사어로 구분되며, 이들은 전적으로 행위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3a)의 순수 양태 부사어와 구분된다.

이들 부사어의 의미기능 차이는 다시쓰기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부사어는 다음과 같이 다시쓰기 할 수 있다.

- (4) a. John answered the question in an angry manner.  
 b. That John lied to me was stupid (of him).  
 c. John angrily broke the door open, and he was still angry when it opened.<sup>6)</sup>  
 d. The cart is heavy after loading.

그리고 순수 양태 부사어와 달리 기타 유형의 부사어는 'in ~ manner'로

5) 원문에서는 'adverb'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형용사에서 형태적으로 파생된 부사적 수식어(adverbial modifiers)'로 정의한다(Geuder 2002:1).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어 용어로 '부사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6) 투명 부사어는 개체의 특수한 상태가 확장된 시 구간에서도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Geuder 2002:22).

다시쓰기 할 수 없다.

- (5) a. He angrily broke the door open. (투명 양태 부사어)  
 a'. \*? He broke the door open in an angry manner.  
 b. They loaded the cart heavily. (결과성 양태 부사어)  
 b'. ?? They loaded the cart in a heavy manner.

(Geuder 2002:24)

양태 부사어에 대한 이 같은 구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부사어는 전적으로 동사(동사의 사건)를 지향한다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부사어는 사건 지향적일 뿐 아니라 참여자 지향적일 수 있다. 전적으로 동사의 행위가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3a)의 순수 양태 부사어와 달리 (3b-d)의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 투명 양태 부사어, 결과성 양태 부사어는 각각 주어 혹은 목적어를 의미지향하고 있어 참여자 지향적이다. 둘째, 부사어의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통사적 위치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영어의 경우, 순수 양태 부사어와 결과성 양태 부사어는 주로 동사의 뒤에,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와 투명 양태 부사어는 동사의 앞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 위치가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다음과 같이 중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6) a. Mary elegantly dressed. (양태)  
 b. Mary dressed elegantly. (결과 또는 양태)

요컨대, 부사어는 유형에 따라 사건 지향적이거나 참여자 지향적일 수 있으며, 통사적 분포 역시 유형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중국어 보어와 부사어의 다양한 의미지향과 통사적 분포를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sup>7)</sup>

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영어의 예만으로 유형학적 경향성을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자료 및 편쪽의 제약으로 기타 언어의 예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다만, 한국어의 경우만 봐도 부사어의 위치가 반드시 동사의 앞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예와 같다.

## 4. 중국어 부사어의 유형 구분과 통사적 위치

Dryer(1992)의 논의에 따르면, VO 언어인 중국어의 부사어는 동사의 뒤, 즉 보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sup>8)</sup> 하지만, Geuder(2002)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는 언어별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부사어의 하위 유형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Geuder(2002)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국어의 부사어, 즉 전통적인 관점의 부사어인 전치 부사어 'X+地+V'와 후치 부사어 'V+得+X'를 상기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참고하는 Geuder(2002)의 분류가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어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바, 우선적으로 형용사를 중심으로 관련 예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 4.1 'A地V'와 'V得A'의 사용 현황

먼저 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이하 BCC)<sup>9)</sup>의 對比 기능을 이용해 'A地V', 'V得A'의 언어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 (1) 지진으로 땅이 크게 진동했다. (동사 지향)
- (2) 이상하게 오늘은 피곤하다. (문장 전체 지향)

물론 상기 예문의 부사어에 대한 분류 기준이 본고의 양태 부사어에 대한 분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8) 물론 중국어가 VO 언어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의 어순 유형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학계의 주된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다. 또한, 사실상 부사어의 위치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므로, 중국어의 어순 유형에 대한 판단은 본고의 논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9) BLCU Corpus Center, <http://bcc.blcu.edu.cn/>

수 있었다.

첫째, 'A地V'와 'V得A'의 전체 사용 빈도는 BCC 예문을 기준으로, 약 4.4:1의 비율로 'A地V'의 사용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사건과 관련된 수식적인 부가 성분은 전치 부사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sup>10)</sup>

둘째, 문체의 차이가 전치 부사어 및 후치 부사어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퍼스 유형별 나타나는 예문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報刊', '科技'와 같은 영역에서는 전치 부사어의 사용이 후치 부사어보다 선호되고 있는 반면, '微博'와 같은 보다 비격식적이고 구어적인 문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치, 후치 부사어가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sup>

아래는 코퍼스 유형별 'A地V'와 'V得A'의 예문과 이를 구성하는 고빈도 언어 조합의 수를 정리한 표이다.

	A地V		V得A		비율 a/b
	a. 총 개수	a'. 조합	b. 총 개수	b'. 조합	
文學	100,811	44,787	23,465	9,251	4.30
報刊	630,188	80,774	102,572	17,860	6.14
多領域	634,712	144,408	175,703	34,392	3.61
微博	216,466	27,341	102,290	14,162	2.12
科技	455,197	69,071	59,030	14,236	7.71
합계	2,037,374	366,381	463,060	89,901	4.40

표 2. 문체별 'A地V', 'V得A'의 예문 및 조합(언어 관계)의 수

10) 이는 단지 형용사로 그 품사를 제한하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현주 (2017:45-47)에서는 王朔의 작품 20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得'자문과 '地'자문의 수를 비교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地'자문은 15,644개가 사용된 반면, '得'자문은 총 4,369개가 사용되고 있어 그 사용 빈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문체에 따라 전치, 후치 부사어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초보적인 의견은 이어지는 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후치 부사어는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특성상 신문이나 과학 기술 등의 객관성을 요하는 문체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地V 의 V	개수	V得A 의 V	개수	A地V의 A	개수	V得A의 A	개수
說	181	說	56	好	62	好	181
問	44	看	39	有效	56	多	51
看	40	來	31	多	30	快	47
進行	26	做	27	成功	22	不錯	40
笑	20	過	26	极大	19	厲害	23
告訴	15	听	24	清楚	17	少	21
看到	13	睡	22	認真	17	不够	19
反映	13	笑	21	高興	16	最多	19
想	13	打	21	有力	15	早	16
望	13	想	21	自覺	14	真	16
做	11	吃	18	准确	13	滿	16
開展	10	走	16	明顯	13	最好	14
發現	10	寫	15	正确	12	遠	12
說道	10	講	14	清晰	11	要命	12
				驚訝	10	清楚	11

표 3. 'A地V', 'V得A' 출현 고빈도 동사    표 4. 'A地V', 'V得A' 출현 고빈도 형용사

흥미로운 점은 1,000개의 고빈도 언어 관계를 구성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유사한 동사와 형용사가 'A地V', 'V得A'의 구성에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說'는 두 구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사였으며, '看, 笑, 做, 想' 등과 같은 동사 역시 고빈도로 나타났다. 반면, 형용사로는 두 구문에서 모두 '好'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多'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清楚, 認真, 高興' 등이 모두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 대해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로 사용될 때의 기능이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국어 화자는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를 유사한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해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추출한 1,000개의 조합 중에 사용된 동사와 형용사의 수량만을 확인한 것으로 이들이 구성하는 예문의 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들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된 전체 예문의 수를 고려한다면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의 유사성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형용사가 각각 동일한 동사의 앞과 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 둘이 얼마만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鏡像表達/狀補鏡像'과 같은 용어를 통해 이를 특수한 현상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현상 중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기에는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이들의 유사성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4.2 부사어의 하위 유형과 통사적 출현 위치

이제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부사어의 하위 부류와 그 통사적 출현 위치의 경향성이 과연 중국어의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도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순수 양태 부사어는 동사 행위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며, 행위자 양태 부사어는 행위자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이때의 평가는 행위자가 참여자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이다. 투명 양태 부사어는 행위 동작의 진행 과정에 나타나는 행위자의 상태, 주로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결과성 양태 부사어는 행위 동작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동사 앞의 '地' 부사어가 동작이 수행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순수 양태 부사어에, 동사 뒤의 '得' 부사어가 결과성 양태 부사어에 상당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먼저 '地' 전치 부사어의 예를 살펴보자.

(7) a. 沙月亮平靜地說：“這還用得着您說嗎？”<sup>12)</sup>

沙月亮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 일에 아직도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나

12) 이하 예문은 모두 BCC에서 추출한 것으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별도로 표기하도록 한다.

요?”

- b. 他盯着我的頭髮。“你的頭髮怎么了?” “漂白。”我簡單地說。  
그는 내 머리를 보면서, “네 머리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했다. “탈색했어” 나는 간단히 말했다.

이처럼 ‘地’ 전치 부사어는 동작의 수행 방식을 나타내는 순수 양태 부사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7a) ‘平靜地’와 (7b) ‘簡單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7b) ‘簡單地’가 단순히 동작의 수행 방식을 나타낸다면 (7a) ‘平靜地’는 동작을 수행하는 행위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다시쓰기의 방식을 통해 검증 가능한데 (7a’)에서 ‘以~態度’로 다시쓰기 되고 있다면 (7b’)에서는 ‘以~的方式’로 다시쓰기 되고 있다.

- (7) a’. 沙月亮以平靜的態度說: “這還用得着您說嗎?”  
沙月亮은 담담한 태도로 말했다. “이 일에 아직도 당신의 의견이 필요 하나요?”
- b’. 他盯着我的頭髮。“你的頭髮怎么了?” “漂白。”我以簡單的方式說。  
그는 내 머리를 보면서, “네 머리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했다. “탈색했어” 나는 간단한 방식으로 말했다.

즉, 양태 부사어가 나타내는 수행 방식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행위가 진행되는 방식이든 그러한 행위를 진행하는 행위자의 태도이든 모두 동작 행위의 수행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어 순수 양태 부사어로 구분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得’ 후치 부사어의 예를 살펴보자.

- (8) a. 蕭玉霜吃了一惊, 眼睛睜得大大, 上上下下打量秦小姐。  
蕭玉霜은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는 秦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 b. 你做得很不錯, 衣服洗得很干淨, 房子也整理得很好。  
아주 잘 했구나. 옷도 깨끗하게 빨고, 방도 정리를 참 잘 했네.
- c. 他等待這可憐的孩子都等得不耐煩了。  
그는 이 불쌍한 아이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得' 후치 부사어는 동작 행위의 실현을 통해 나타나는 수동자(8a) (8b) 또는 행위자의 결과 상태(8c)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때의 결과에는 실제로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시 기대되는 목표 역시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동사의 동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태는 실제 사건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된다.

- (9) a. 希望你們兩個玩得開心。  
 너희 둘이 즐겁게 놀기를 바라.  
 b. 今天玩得開心嗎?  
 오늘 즐겁게 놀았나?

(9a)-(9b)는 모두 동작에 따른 결과로서의 행위자(참여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지만 (9a)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감정 상태로서, 동작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기대되는 일종의 목표와 같다 할 수 있다.

한편, 코퍼스에서 추출한 고빈도 언어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地' 전치 부사어로 사용된 형용사는 주로 행위자의 상태,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행위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의 감정 상태를 기술한다.

- (10) a. “咱們的空軍真了不起”老頭兒高興地說。  
 “우리 공군은 정말 대단해” 늙은이는 기쁘게(기뻐서) 말했다.  
 b. “上班能看電視?”春生不耐煩地說。  
 “출근을 해서도 TV를 볼 수 있는 건가?” 春生은 언짢게(언짢아서) 말했다.

이들은 모두 동작이 진행되는 시구간과 행위자의 감정 상태가 나타나는 시구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투명 양태 부사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 양태 부사어는 동작의 수행 방식을 나타내는 순수 양태 부사어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10a-b)의 부사어 '高興地'와 '不耐煩地'는 '以~的方式'나 '以~態度' 어느 것으로도 다시쓰기 되지 않는다.

- (10) a. \*“咱們的空軍真了不起”老頭兒以高興的方式/以高興的態度說.  
 b. \*“上班能看電視?”春生以不耐煩的方式/以不耐煩地態度說.

만면, ‘得’ 후치 부사어는 행위자가 행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사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사건을 행한 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 (11) a. 珊瑚說：“你看，還是兩個孩子說得好。  
 珊瑚는 “이것 봐, 역시나 두 아이가 말을 참 잘해”라고 말했다.  
 b. 当我來求乞的時候你把我回絕了，你做得好。  
 내가 구걸할 당시 당신이 나를 거절했었지, 잘했어.  
 c. 人們通常期待一个人在處理實際事務方面表現得聰明。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 실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스마트할 것을 기대한다.

예문 (11a-c)의 ‘說得好’, ‘做得好’, ‘表現得聰明’은 모두 행위자 및 행위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得’ 후치 부사어가 동사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예문 (8)에서의 결과성 양태 부사어의 기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살펴본 영어의 행위자성 부사어가 사건을 행한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따라서 통사적으로 행위자의 위치와 가까운 행위자 주어의 뒤, 동사 앞의 위치를 선호하고 있다면, 중국어에서는 비록 그것이 행위자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행위자가 행한 전체 사건을 조망한 뒤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사 뒤 문미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형용사가 각각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를 충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과거 학자들은 동사의 동작을 지향하여 동작의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동일한 형용사가 부사어와 보어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 (12) a. 胖女人很傷心地哭着。  
 뚱뚱한 아가씨가 상심해서 울고 있다.  
 b. 胖女人哭得很傷心。  
 뚱뚱한 아가씨가 슬프게 울고 있다.

(劉松漢 1990: 69)

위의 예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12a)가 아가씨가 슬프게 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12b)는 아가씨가 우는 모습이 슬퍼 보인다는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劉松漢 1990: 69). 이를 본고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면 (12a)의 '很傷心地'는 투명 양태 부사어로,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의 행위자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면 (12b)의 '得很傷心'은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로 우는 사건에 전체에 대한 행위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 (13) a. 經濟緩慢地增長。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한다(하고 있다).  
 b. 經濟增長得緩慢。  
 경제가 느리게 성장했다.

(金立鑫 2009: 394)

전치 부사어로 사용된 (13a)의 '緩慢地'는 성장이 완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순수 양태 부사어로 분석된다면, 후치 부사어로 사용된 (13b)의 '得緩慢'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성 양태 부사어이며, 이에 따라 성장이 '완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 역시 부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중국어에서 '地'자를 활용한 전치 부사어는 각각 동작 행위의 방식을 나타내는 순수 양태 부사어와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의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투명 양태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면 '得'자를 활용한 후치 부사어의 경우 각각 행위 이후의 결과 또는 목표를 나타

내는 결과성 양태 부사어 및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표지로, 비록 형태적으로는 구분되나 음성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De'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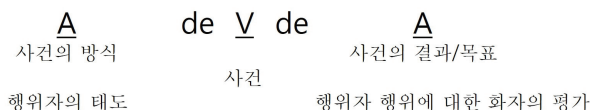


그림 2. 중국어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에 따른 의미기능 차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점은 바로 중국어 부사어의 통사적 위치에 이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어 부사어의 위치가 앞서 살펴본 영어 부사어의 유형별 통사적 위치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Geuder(2002)의 분류에서 순수 양태 부사어와 결과 양태 부사어는 동사의 뒤에 위치하는 후치 부사어로, 행위자 양태 부사어와 투명 양태 부사어는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전치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어는 순수 양태 부사어와 투명 양태 부사어가 전치 부사어로, 결과성 양태 부사어와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가 후치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위의 그림2를 통해 부사어의 하위 유형별 통사적 위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시간순서의 법칙(Principle of Temporal Sequenc/PTS, 戴浩一 1985/1988)'이다. 즉, 중국어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는데, 동사와 부사어의 상대적 통사 위치도 바로 이러한 시간순서의 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최소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시공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즉, 순수 양태 부사어, 투명 양태 부사어)는 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결과이든 목표이든 그것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것을 나타내는 경우와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인 경우(즉, 결과성 양태 부사어,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 부사어는 동사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sup>13)</sup>

## 5. 나오며

본고에서는 부사어의 하위 유형 및 통사적 출현 위치에 대한 유형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得'자 보어를 중국어의 후치 부사어로 상정하고 '得'를 (전치) 부사어 표지인 '地'와 마찬가지로 부사어를 표시하는 부사어 표지로 제안하였다.

동사의 앞과 뒤에 출현하는 형용사 성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으로 보어라 명명되었던 '得'의 후치 성분 역시 동사의 동작 및 참여자를 의미지향하며 그들의 방식 및 양태에 대한 수식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국어의 부사어는 'De'라는 부사어 표지를 통해 동사의 전과 후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다만, 부사어의 하위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기능 및 언어 관계에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동사의 전과 후라는 통사적 출현 위치에도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작 행위의 방식을 나타내는 순수 양태 부사어와 행위가 진행되는 시구간 동안의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투명 양태 부사어는 '地' 전치 부사어로, 행위 이후의 결과 또는 목표

13) 영어의 경우 그러한 통사적 위치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최소한 영어에서는 부사어의 위치와 시간순서의 법칙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張敏 2019:182).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부사어의 위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각주 7)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서는 부사어의 작용역(scope)에 따라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 등으로 구분되고 부사어별 통사 위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다만 한국어의 부사어 유형과 유형별 통사적 위치 및 의미기능 차이가 중국어, 영어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이와 관련하여, 金立鑫(2017) 역시 동사 전후에 나타나는 'De'의 수식어 표지로서의 가능성과 대칭성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를 나타내는 결과성 양태 부사어 및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행위자성 양태 부사어는 '得' 후치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들의 통사 위치 및 세부 의미기능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본질적으로는 모두 주요 동사에 대한 부차적 성분이라는 점에서 모두 부사어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어에서 '시간순서의 법칙(PTS)'이 이러한 부사어의 유형 구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부사어의 하위 유형별 통사적 위치와 중국어 부사어의 하위 유형별 통사적 위치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중국어의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과 부사어(보어)가 나타내는 상태의 시간적 발생 순서에 따라 그것이 동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유지되어 온 상태라면 동사의 앞에 위치하여 전치 부사어의 형태로, 그것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태라면 동사의 뒤에 위치하여 후치 부사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부사어의 유형별 통사적 위치는 역시나 '시간순서의 법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그동안 그 문법적 정의가 불분명했던 중국어 보어 및 '得'의 신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하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국어 보어를 부사어의 일종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장 성분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사어와 보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부사어의 기능에 따라 하위 유형을 구분하고 그러한 유형과 통사적 출현 위치의 연관성을 설명함으로써 전치 부사어와 후치 부사어의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15) 'De'를 활용한 교수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실제 중국어 자료에서 '的', '得', '地'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들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즉, 수식의 기능) 단지 변별을 위해 서면상 다른 글자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 參考文獻 >

- 강명윤 역(1998), 《츄스키 언어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노지영(2016),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A+地+V', 'V+得+A'구문 사용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중국연구》 67, 113-137.
- 신미경·유위(2016), <현대중국어 구조조사 '地'에 관한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분석>, 《중어중문학》 66, 183-200.
- 오유정(2017), <후치 부사어 구문 V得C—이차 술어 구문 동결식(VC)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83, 37-60.
- 유위·신미경(2017), <현대중국어 조사 '得'에 관한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분석>, 《중국어 교육과 연구》(26), 211-228.
- 이나현(2016), <교육을 위한 'AV', 'VA', 'V得A' 구문의 기능 차이 고찰>, 《중국문화연구》 32, 195-211.
- 임소정(2014), <현대중국어 형용사가 부사어와 보어로 사용되는 현상 연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7-161.
- 임소정(2015), <중국어 부사어와 보어의 교수방안 연구>,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155-160.
- 정소영(2014), <부사어 중작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구조조사 '지(地)'와 정도보어 '득(得)'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49, 607-630.
- 정소영(2015), <'地'와 '得'의 사용조건>, 《중국언어연구》 61, 435-452.
- 정현주(2018), <현대중국어 '得'字 상태보어구문 의미기능 연구: '부사어구문', '결과보어구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2013), <현대 중국어 결과성 형용사 부사어에 대한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83, 235-249.
- 戴浩一, 黃河 譯(1988),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1), 10-20.(1985)
- 丁聲樹 等(1961),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 賀 陽(1996), <性質形容詞作狀語情況的考察>, 《語文研究》(1), 13-18.
- 金立鑫(2009), <解決漢語補語問題的一個可行性方案>, 《中國語文》 322(5), 387-398
- 金立鑫(2011), <從普通語言學和語言類型角度看漢語補語問題>, 《世界漢語教學》(4), 449-457.
- 金立鑫(2017), <普通話 "NP的VP"非限定動詞假設>, 《국제학논총》 25, 67-85.
- 金立鑫·于秀金(2012), <從與OV-VO相關和不相關參項考察普通話的語序類型>, 《外國

語》35(2), 22-29.

黎錦熙(1924/1992), 《新著國語文法》, 北京: 商務印書館.

林素廷(2013), <淺談呈狀補鏡像的形容詞語義體系及其意義連接機制>, 《中國語言研究》56, 367-387.

劉丹青(2005), <從所謂“補語”談古代漢語語法學體系的參照系>, 《漢語史學報》(0), 37-49.

劉松漢(1990), <形容詞作狀語, 補語的情況再考察>, 《南京師大學報》(1), 66-72.

劉月華(1982), <狀語與補語的比較>, 《語言教學與研究》(1), 22-37.

劉振平(2015), 《形容詞做狀語和補語的認知語義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 商務印書館.

邵菁·金立鑫(2011), <補語和Complement>, 《外語教學與研究》(1), 48-57.

沈家煊(2010), <如何解決補語問題>, 《世界漢語教學》24(4), 435-445.

徐采霞(2016), <漢語形容詞狀補異位的語義限制>, 《漢語學報》(3), 46-52.

張國憲(1991), <謂詞狀語語義指向淺說>, 《漢語學習》(2), 13-16.

張黎(2003), <“有意”和“無意”——漢語鏡像表達中的意合範疇>, 《世界漢語教學》(1), 30-39.

張敏(2019), <時間順序原則與相似性的“所指困境”>, 《世界漢語教學》33(2), 166-188.

朱德熙(1982),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朱文文(2008), 《現代漢語形容詞狀補語序選擇機制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學位論文.

Dryer, M. S.(1992), The Greenbergian Word Order Corrections, *Language* 68, 81-138.

Geuder, W.(2002), *Oriented adverbs: Issues in the lexical semantics of event adverb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at Konstanz

Himmelman, N. & Schultze-Berndt, E.(2005), Issue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Participant-oriented Adjuncts: an introduction, In Himmelman, N. & Schultze-Berndt, E. (eds.), *Secondary Predication and Adverbial Modification: The Typology of Depi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8.

Whaley, L.(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김기혁 역, 언어유형론: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서울: 소통,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Adverbials and  
 'De(得)' Post-posing Adverbials in Chinese  
 - Comparison with 'De(地)' Pre-posing Adverbials

Oh, Youjeong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De(得)' Buyu(補語) can be assumed as 'Post-posing adverbial' and 'De(得)' as an adverbial mark as well as 'De(地) in Chinese.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f the subtypes of the manner adverbials and their relevant syntactic positions by Geuder(2002), adverbials can be classified as 'pure manner adverbial', 'agentive manner adverbial', 'transparent manner adverbial' and 'resultative manner adverbial'. Based on this, I argue that De(地) Pre-posing adverbials take on the roles of 'pure manner adverbial' and 'transparent manner adverbial', whereas De(得) Post-posing adverbials take on the roles of 'resultative manner adverbial' and 'agentive manner adverbial' in Chine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TS(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ord orders of verb and adverbials. i.e., De(地) Pre-posing adverbials represent the manner of verb event or the state of agent during the verb event, whereas De(得) Post-posing adverbials represent the result/goal of the verb event or the speakers evaluation of the agent after the verb event.

Key words: De(得), De(地), Manner adverbial, Pre-posing adverbial, Post-posing adverbial, Buyu(補語)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10. 27	2019. 11. 11	2019. 11. 13	2019. 11. 25	2019. 12. 31

